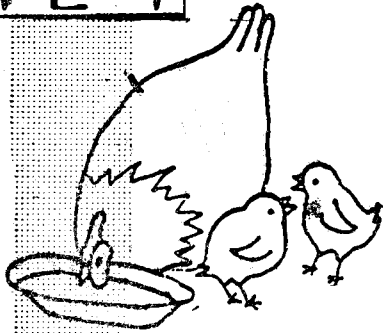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1. 온도

12월의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5\sim 6^{\circ}\text{C}$ 로서 빙점 이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더욱이 야간에는 -10°C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사내 온도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에 비해 국내의 계사는 대부분이 겨울을 위주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겨울 혹한기에도 큰 피해없이 견디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완전한 방한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온시설을 강화하여 계사내가 최저 한계온도(7°C)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계사내 야간 동안의 온도저하로 물통이 어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닭 벗에 동상을 유발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야간동안의 온도유지는 주간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2. 습도, 환기

겨울동안은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모든 환기구를 폐쇄시키는 결과로 인하여 계사내 자리깃이 젖어 과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도가 높은 구간에는 창문을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를 시키고 계사바닥이

나 자리깃에는 생식회를 뿌려 사내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평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증계장을 방문하면 바닥의 과습으로 인하여 자리깃은 완전히 젖은 상태에 있으며 닭 자체도 하리, 폭시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버려두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제한급이중인 육계종계 육성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료만 제한하고 음수는 무제한시킨 결과 이와같은 상태가 더욱 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이려니와 닭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에서 젖은 자리깃은 완전히 걷어내고 생식회를 2cm 두께로 바닥에 깔고 완전히 건조된 자리깃으로 교체시켜야 한다.

3. 사료

체온 유지를 위하여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여름 사료보다도 열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던가 일반 사료에다 곡류를 5g정도 보강급여함이 좋다. 일반적으로 동기에는 사료섭취량이 타 계절보다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사내온도가 지나치게 저하하면 사료섭취량이 반대로 줄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고열량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하고 사내온도를 상승시켜 주고 사료의 급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추위가 가장 심한 새벽에는 사료를 급여해도 움추리고 앉아 먹지 않으므로 비교적 추위가

12
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1농장장)

풀린 연후에 사료를 급여하고 식욕이 감퇴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늘, 부추, 고추등을 갈아 조급씩 혼합급여하면 식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4. 육성중인 닭관리

동기간 육성중인 닭에 있어서는 동지이후 일조시간이 점차 길어지므로 인하여 성성숙이 빨라져 그 다음해 산란시 조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위적인 점감점등법과 제한급여를 동시에 실시하여 조산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종계가들이 대부분의 종계를 8,9,10월에 수입하여 동기간에 육성하기 때문에 동기간의 닭관리가 다음해 초생추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보다 세심한 영양관리와 점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점등

점등원리에 의하면 성계에 있어서는 한번 올린 점등시간을 다시 내릴 수 없는 것이며 육성계에 있어서는 내린 점등을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성계에 있어서는 동지이전의 점등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며, 육성계에 있어서는 동지 이후의 점등관리가 중요하다. 즉 점등시간이 내려가야 하는 육성계가 동지 이후에는 일조시간이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무점등 상태에서 방치해두면 조산으로 소란생산이 많아지므로 초

산일령시(22주 기준)의 일조시간을 기준하여 일정시간점등을 실시하던가 아니면 육추시로부터 점등시간을 계산하여 점감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9월 1일에 입추한 닭에 있어서는 처음 1주간은 24시간 종야점등, 2주부터는 22주령시의 일조시간+4.5시간으로 맞추어 그 이후1주에 15분씩 낮추어 주므로써 22주령시 일조시간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표1 참조).

6. 질병

사내온도의 저하, 파습, 환기 불량등으로 인하여 호흡기질환의 발생이 많다. 특히 전염성코라이자,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즈마병(C.R.D),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 기관지염등의 발생이 빈발하게 되므로 계사내의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의 발생을 줄이고 계사내 온도차가 15°C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번호에는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 기관지염에 대해 간단히 논술코자 한다.

1) 전염성 기관지염

① 원인 : 바이러스

② 주된 증상 : 기성을 발하면서 하리, 현저한 산란저하, 심한 것은 무산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③ 해부소견 : 후두기관의 카타르성 염증, 폐의 출혈 및 수종, 난소에 병변(난소위축)

④ 치료 : 항생물질 실패계투여

2) 전염성 후두기관지염

① 원인 : 바이러스

② 주된 증상 : 강한 개구호흡을 하며 껍뻍하는 기성을 발한다. 월담이 나오고 작혈을 가끔 한다.

③ 해부소견 : 기관의 병변이 심하고 기관 후두에 출혈혈괴가 충만되어 있다.

④ 치료 : 항생물질 투여

7. 연탄가스의 주의

동기에는 난로 대수가 많은 육추실 부화실에서 강제 환풍에 의한 역풍으로 연탄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세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닭은 타동물에 비하여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일산화탄소에 대해 약하기 때문에 연탄가스에 의한 중독은 대단히 치명적이다. □□

